

월요광장



박석무  
다산학자·우석대 석좌교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고르자면, '호학(好學)'이라는 두 글자를 으뜸으로 여기고 싶다. 공자는 '논어'에서 모든 것을 다 양보할 수는 있지만 학문을 좋아하는 것만은 어느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다고 말하며, '호학'만은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않는다고 명백하게 말하였다. 학문을 좋아하는 일이라야 자신의 최고 장기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정조의 신하였던 다산 정약용 또한 양보할 수 없는 일의 하나가 학문을 좋아하는 일이었다. 호학의 군주와 호학의 신하가 만나 조선 후기 르네상스가 이뤄졌던 점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일이다. 호학과 함께 다산은 기록을 참으로 좋아했던 학자였다. 그의 일생을 제대로 알도록 기록해놓은 다산의 연보, '사암선생연보(侯菴先生年譜)'라는 기록을 보면 다산의 삶을 참으로 소상하게 알아볼 수 있는 자료로 가득차 있다. 1799년 4월 24일 황해도 곡산도호부사로 근무하던 다산은 내직으로 들어와 병조참의에 제수되었다. 바로 이어서 형조참의로 옮겨져 의문스럽던 옥사(獄事)를 바르게 시정하는 업무에 임하였다. 참으로 많은 옥사에서 바르지 못한 것들을 올바르게 시정하여

호학의 군주 정조 임금의 그림자

법률가로서의 다산의 본색을 여지없이 보여주었던 때였다. 그러나 그 무렵 다산을 무고하고 모함하는 자들이 많아 형조참의의 사직소를 올리고 다산은 관계를 떠나서 비통한 시기를 맞게 된다. 그러던 무렵의 일이다. 기록에 보인다. "12월에 특별한 교지에 의해 세서례(洗書禮) 때의 어제시(御製詩)에 화답하는 시를 지어 올렸다"라는 내용이다. 다산이 38세이면 정조는 48세, 돌아가시기 전 1년도 안 되는 정조의 만년의 일이다. 여기서 '세서례'란 세속의 '책거리'란 말로 아동들이 책을 한 권 다 마치면 부형들이 떡을 해다가 서당에 갖다준다. 책 한 권 마친 아동은 격려하고 더 많은 책을 배우라는 권장의 뜻이었다. 그런데 아동도 아닌 48세의 임금이 그 바쁜 정사(政事)에도 틈을 내서 '춘추좌전'이라는 고경(古經)을 완전히 독파하자, 임금의 어머니 혜경궁 홍씨께서 세서례를 해주자 임금이 시를 짓고 다산을 불러 화답의 시를 지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반백의 임금이 호학하여 책 한 권 읽기를 끝내자, 격려의 뜻으로 노모가 잔치를 베풀어 준 격이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기록을 보면, 정조는 책읽기를 그렇게 좋아했고 학문에 그런 열정을 보인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정조의 '호학'에 대해 다산 같은 호학자도 여러 곳에서 감탄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겼다. 조선 500년, 27명의 임금이 있었지만, 전반기에는 세종대왕이 그렇게 호학하여 책 읽기에 전혀 게으르지 않았고, 조선 후기에는 정조대왕이 호학하여 책 읽기로는 일등의 임금이였다. 고경을 읽어서 요순이 어떻게 정치를 했던가를 알게 되고, 수

많은 사서(史書)들을 읽어 고금의 치란흥망에 대한 역사를 알아야 정치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연산군이나 광해군은 호색(好色)에는 수준급이지만 호학에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다. 책을 읽지 않고 학문을 멀리한 군주가 어떻게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우리 시대에도 호학하고 책 읽기를 좋아했던 대통령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 DJ는 참으로 애서가요 호학하는 정치가였다. 그분을 모시고 정치를 했던 경험을 통해 나는 그분이 독서에 열중했음을 목격하였다. 우리의 역사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의 역사에 그분처럼 밝았던 분을 나는 아직까지 만나본 적이 없다. 서양의 기독교 역사까지도 완전히 꿰뚫고 있던 그분의 박학다식한 실력을 누가 감히 따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군주도 학자 군주를 그리워하고 신하도 학자 신하를 잊지 못한다. 정치하는 사람들, 참으로 바쁘고 할 일도 많다. 그들에게 호학하라! 책을 읽으라! 라고 권하는 일이 쉽게 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정조 같은 그 바쁜 임금도 50이 가까운 나이에 그렇게 열심히 책을 읽었고, 학자 신하 정약용은 18년의 귀양살이에 500권이 훨씬 넘는 그런 방대한 책을 저술했지 않은가. 더구나 요즘은 책을 읽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얼마 전에 대통령이 이사기면서 책을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기사를 읽었다. 전에는 더러 휴가는 대통령이 어떤 책을 읽었다는 기사도 읽었다. 어떤 책을 버렸다는 기사는 보았지만, 책을 읽었다는 기사는 읽은 적이 없다. 정조나 다산 만큼의 호학과 책임기를 바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대통령도 책을 읽었다는 기사가 나오기를 기다려 본다.

수필의 향기

'곰스크'로 가는 기차



김향남  
수필가

어렸을 때 산 너머에서 들려오는 기적소리는 언제나 아련한 동경심을 불러왔다. 기적소리가 먼지였는지 기차가 먼지였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내 호기심을 키우는 데 그만한 자극제는 없었지 싶다. 산촌의 소풍 장소는 늘 정해져 있기 마련이어서, 봄이면 벚꽃이 화사한 하구의 강둑으로, 가을이면 들국화가 함초름한 산마루터로 줄지어 떠나곤 했다. 아름답리 동치 아래 모여서 도시락을 먹을 때, 그 위로 꽃잎이 나풀거렸다. 흥겨운 듯 신바람이 난 듯 공중을 맴돌던 그 연분홍 꽃잎들. 그러나 산마루에서 바라보던 드넓은 평원과 저 멀리서부터 달려오던 기차의 거친 숨소리에 비하면, 내 심장은 아무래도 높은 산마루에서 더 쿵쿵거렸던 것 같다. 그 시절 기차는 산마루에 올라서서나 볼 수 있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문명이었다. 산 아래 작고 나지막한 동네가 세계의 전부였던 때, 그렇게나 길고 도도하고 신기한 물체는 이제까지는 없는 것이었다. 저 바닷속 어디에 살던 이무기 한 마리가 용이 되어 뿔뿔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점단의 진화생물체가 되어 이 도시 저 도시를 활주하는 것도 같은 장중하면서도 날렵한 물

체. 눈을 휘둥그레하게 하는 그 거대한 물체가 산과 산 사이 작은 길을 뚫고 뚝뚝, 빼양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달릴 때, 산모퉁이를 돌아 아득한 곳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바라볼 때 나는 이미 거기 몸을 싣고 있었다. 호기심과 설렘을 한가득 안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달려보는 것이었다. 기적소리가 유난히 크게 다가온 것은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 것도 그 무렵부터였을 것이다. 기차가 내뿜는 길고 투박한 소리는 사람의 마음을 끄는 묘한 힘이 있었다. 저 아래 고여있던 것들이 스르륵 일어나 어서 탈 준비를 하라고 꼬드기는 것도 같고, 꿈과 기대와 동경을 넘치도록 담아서 금방이라도 이뤄질 수 있다고 한껏 북돋는 것도 같았다. 그러나 그 소리는 '영원한 노스탤지어의 손수건'처럼 아득하고 슬펐다. 기쁨도 슬픔도 다 들어 있는 것처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요동쳤다. 그 기차를 타고 도시에서 나와 산지 꼭 오래되었다. 내가 사는 이 도시가 그토록 동경하던 그곳인지는 잘 모르겠다. 여전히 두리번거리는 중이기도 하고 끝내 이르지 못한 채 해매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좋은 집과 아름다운 자연 속에 살고 있으나 이게 다가 아닌 듯 싶기도 하다. 정작 가야 할 곳, 해야 할 일을 미루둔(혹은 놓쳐버린) 채 몽그적거리고 있는 건 아닌가 문득문득 조바심을 치기도 한다. '프리즈 오르트만'이라는 독일 작가, 그 역시 기적소리를 들으며 지란 것이 아닐까. 그의 소설 '곰스크로 가는 기차'에는 '곰스크'로 가고 싶어 하는 한 남자가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를 쓰게 된 배경에는 틀림없이 기

차 혹은 기적소리가 작용했을 것 같기 때문이다. 언젠가 박완서도 자신이 경험한 것밖에는 못 쓴다고 말한 적이 있지 않던가. '곰스크'는 어릴 적 아버지에게서 들게 된 멀고도 아름다운 도시의 이름이다. 아버지에게서 들었으나 사실은 아버지도 가보지 못한 곳이며, 삶의 모든 기대를 담고 있는 곳이지만 내용을 하나도 알 수 있는 책처럼 미지의 공간일 따름이다. 그런데도 그곳으로 가야만 진짜 삶이 시작될 것 같은, 남자에게도 어느덧 삶의 유이자 목적이 된 곳이다. 결혼 후 남자는 가진 돈을 다 털어 '곰스크행' 기차표를 마련하고 아내와 함께 대망의 여정길에 오른다. 그러나 도중에 정차한 한 시골역에서 그만 기차를 놓치고 만다. 다음 기차를 기다리며 하룻밤을 머물게 되지만 여차저차 결국은 그곳에 눌러앉게 된다. 그 사이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생활은 더 안정되어 가는데, 그렇게 '살 만하게' 바뀔수록 '곰스크'는 더 멀어진다. 하지만 멀리 '곰스크'로 가는 특급열차의 '그 쫓아지는 듯 슬픈 기적소리'가 울려올 때면 아직도 고통스러운 무엇이 솟구치는 것은 참기 어려운 일이다. 이 짧은 소설이 품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은유일 것이다. 누구의 인생이라도 그와 비슷하지 않겠는가. '곰스크'를 꿈꾸지만 먹고 살기 바빠서 그만 잊어버리고 있거나, 도시의 온갖 소음에 휩싸여 기적소리 같은 건 듣지도 못하거나. 그러나 종종 문헌이 되살아온다. 되풀이되는 통증처럼 '곰스크'를 앓는다. 마음 깊숙한 어느 곳, 또 다른 무엇을 향하여 다시금 그 기차를 기다려 보는 것이다.

기고

'떠나는 배' 박용철 시인을 기리는 일



김용하  
용아 박용철 기념사업회 이사장

은 나라가 장마와 예상을 불허하는 집중호우에 이어 지금은 무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극심한 자연재해는 우리의 일상 뿐아니라 인류의 귀중한 유산인 유물과 유적 등 문화재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문화재는 오랜 역사성과 그 속에 함유된 보편적 가치의 존속이 필요해 후에 재전된다고 해도 본래적 의미를 회복할 수 없기에 그 보존의 엄중함이 높다 할 것이다. 근래에 우리 주변의 문화재를 돌아보면 허술하게 관리되는 곳이 적지 않다. 우리 고장의 문화적 기념물로 지정된 많은 유적과 유물들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여러 채의 초가집으로 이루어진 전통가옥인 용아 박용철선생의 생가도 장마철 침수가 우려된다는 제보가 잇따랐다. 용아(龍牙) 박용철(朴龍喆) 선생은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서 출생했고 본관은 충주이다. 1916년 광주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이듬해 휘문숙에 입학했다 바로 배재학당으로 전학했다. 그러나 1920년 배재학당 졸업을 몇 달 앞두고 자퇴, 귀향했다. 일본 동경의

아오야마학원(青山學院) 중학부를 거쳐 1923년 도쿄 외국어학교 독문학과에 입학했으나 관동대지진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했다. 문학은 아오야마학원 재학 때 사권 김영랑과 교류하면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1930년대에는 사재로 문예잡지 '시문학' 3권, 1931년에는 '문예월간' 4권, 1934년에는 '문학' 3권 등 도합 10권을 간행했다. '떠나는 배' 등 식민지 설움을 묘사한 시 등을 발표하며 민족 문예작가로서 당시 유행하던 이데올로기적 모더니즘을 지양하고 김영랑, 정지용 등과 함께 시문학파를 형성해 순수시 문학활동을 했다. 또한 그가 경영한 시문학사에서 1935년 같은 시문학 동인이었던 정지용의 '정지용시집'과 김영랑의 '영랑시집'을 간행했으며 해외문화학, 극예술연구회 회원으로 참여해 입센 원작의 '인형의 집' 등 연극공연을 위한 희곡을 번역하기도 했다. 그는 정지용 등 동인들의 시집과 문예지를 간행해 주는 등의 활동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작품집은 내지 못하고 1938년 서울에서 별세했다. 그의 시나 작품은 많지 않지만 일제치하의 적박한 현실에서 사비를 들여가며 문예지를 간행해 우수한 문인들을 소개·후원했다. 릴케, 하이네, 괴테 등 360여편의 서구 문학작품을 번역·소개하는 역할을 한 점은 한국 근대문학사에서 선구적인 공적이라 할 것이다. 이와같이 시, 출판, 평론, 번역, 연극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서정성과 문학적 감성으로 문학적 출판 등 문화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말과 글을 통해 민족의 얼을 선

양한 민족주의적 선구적인 활동을 전개한 용아 박용철선생은 기리고 본받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는 시민들이, 용아 박용철기념사업회라는 사단법인을 창립해 초대 고(故) 문병란 이사를 비롯해 제2대 최상준 이사장, 제3대 김보곤 이사를 추대해 메세나 운동과 심시업만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이 고장의 탁월한 문화 선구자인 용아 박용철선생을 현창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순수한 민간 활동만으로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 광주시 지방문화재 13호로 지정된 용아 박용철 생가의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이나 기념관 건립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실질적으로 용아 선생의 주도와 재정지원으로 활성화된 시문학기념관이 오히려 전남의 타 지역에 이미 설치돼 있고 시문학파로 같이 활동했던 정지용, 신석정, 이하운, 김영랑 등은 이미 그 지역에 기념관이나 문학관이 자리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며 문화적 자부심을 드높이고 있다. 또한 관련 상품 등을 개발하고 브랜드로 활용해 일자리와 소득창출에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나 예술의 분향이니 하는 수사에 걸맞게 문화의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선구자인 용아 박용철 선생을 더 현창하는 게 필요하다. 그를 통해 광주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관광지원화해 지역의 경제발전에도 일조하도록 행정기관과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社說

파업 위기 금호타이어 지역사회에 응답하라

지역사회와 소통 부재로 비판을 받고 있는 금호타이어가 파업 위기에 봉착했다.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은 지난 8·9일 이틀간 광주·곡성·평택공장 노조원 35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96.4%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14일 정의대행위원회를 열고 파업 여부와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6월부터 상견례를 시작으로 12차례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올해 2분기 연속 13% 영업이익을 올렸는데도 고용 안정과 미래비전 제시 요구를 무시한채 사측이 오히려 인력 구조조정과 휴게시간 통제, 임금삭감안을 내놓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조의 비판에는 일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금호타이어 공장에선 최근 안전사고가 잇따라 근로자 안전에 무심경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6일 광주공장에

서 지게차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광주공장에서만 지난 3년 동안 54건의 지게차 관련 사고로 50여명의 노동자가 중경상을 입었다. 지난 4월에는 곡성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성형기계에 끼어 숨졌다. 경찰은 두 공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물론 과거 사고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 차체에 철저히 수사로 구조적인 문제는 없지 않지 않지 않아야 한다. 2018년 금호타이어를 인수한 중국 더블스타는 인수대금을 치른 후 금호타이어에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 있다. 지역사회와의 소통은 물론 사회 환원에도 눈감고 있다. 광주공장은 내년이면 설립 50주년으로 설비 개선이 시급한데도 투자는 전혀 하지 않고 공장 이전을 통해 막대한 개발이익금만 챙기려 하고 있다. 금호타이어가 '떡튀' 우려를 잠재우려면 광주공장 이전을 위한 최소한의 투자를 실천해야 한다. 지금은 노조와 지역민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 시간이다.

수도권 맞춤 부동산 정책, 지방은 안중에 없다

정부의 '8·8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수도권 맞춤 정책이라고 할만하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 핵심으로 수도권 경기가 최악인 지방은 안중에도 없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서울과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하는 등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42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최근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대규모 물량 공급으로 주택가격 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이 이번 부동산 정책 발표의 배경이다. 하지만 수도권 맞춤 정책으로 인해 광주 등 지방 부동산 경기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광주만 하더라도 준공 후 미분양 등 악성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가면서 분양가보다 싼 '피피' 물량이 속출할 정도로 부동산

경기가 최악이다. 이런 마당에 수도권에 공급을 늘리면 그나마 투자 여력이 있는 지역 부유층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해 지역 부동산 경기를 더 침체시킬 가능성이 있다. 전세사기 등으로 수요와 공급이 모두 급감한 수도권 빌라와 원룸 등 비아파트 시장의 공공 매입은 확대하기로 하면서 지방 미분양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고작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라니 얼마나 탁상행정 인지를 보여준다. 그렇지 않아도 인력과 자본이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마당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마저 수도권 집중이라니 지역소멸을 가속화시킬 않을까 걱정이다. 자금이라도 지역소멸 방지 차원에서 지방에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부동산 정책을 세워 집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방안도 고심해 보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1948년 제14회 런던 올림픽 참가를 위해 제작한 페넌트(Pennant)와 후원권은 등록문화재(제490호)로 등재돼 있다. 선수단이 대회장에 가져간 페넌트는 세계에 대한민국을 소개하고 태극기를 알렸다. 삼각형 페넌트에는 'KOREA', '1948'이 적혀있고 태극기가 새겨져 있다. 60여년 흘러 2012년 런던에서 다시 열린 올림픽에 참가한 한국 대표 선수단의 유니폼은 각별했다. 단복의 모티브는 '1948년의 정신'으로, 대한민국 국호를 내세우고 처음으로 참가한 런던 올림픽에 대한 오마주였다. 런던 올림픽 폐막 다음날인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으니 국가 차원의 대회 출전지원은 연감생심. 올림픽후원회는 선수단 경비를 충당하려고 런던올림픽 후원권을 발행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 발행한 복권이다. 140만 배를 찍었고 액면가 100원, 당첨금은 100만 원이었다. 총 판매액은 1억 4000만 원, 당첨금을 제외한 후원금은 9730만 원이었다. 후원권에는 전경무 올림픽대책위원장의 사진이 인쇄됐다. 대한민국 출전을 위해 국제올림픽위

원회(IOC)에 참석하러다 비행기 추락 사고로 숨진 전 위원장을 기리기 위해서다. 전 위원장의 뒤를 이어 올림픽대책위원장을 맡은 이원순 선생의 유물(여행증명서)도 등록문화재에 올라 있다. 스웨덴 스톡홀름 IOC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만든 자기소개서이자 여권이다. 정부가 공식 수립되지 않아 여권을 발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파리 올림픽조직위가 '에펠탑 개·보수를 위하여'를 수여 만들었다"고 자랑한 올림픽 메달 때론 에펠탑을 당했다. 미국 스키이트보드 선수 나이에 날인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으니 국가 차원의 대회 출전지원은 연감생심. 올림픽후원회는 선수단 경비를 충당하려고 런던올림픽 후원권을 발행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 발행한 복권이다. 140만 배를 찍었고 액면가 100원, 당첨금은 100만 원이었다. 총 판매액은 1억 4000만 원, 당첨금을 제외한 후원금은 9730만 원이었다. 후원권에는 전경무 올림픽대책위원장의 사진이 인쇄됐다. 대한민국 출전을 위해 국제올림픽위 /윤영기 사회·체육담당 부국장 penfoot@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인 崔宰豪		논설실장 蔡熙鍾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권) (주최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